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화)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1월 1일 수요집회는 쉽니다.

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2.3kg에 10,000원입니다.

설거지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식당 앞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통독 성경 : 바울서신  
일 시 : 1월 6-8일 (월-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 소 : 교육관

사 63:7~9 / 시 148  
히 2:10~18 / 마 2:13~23

엡1:15-23

식 당 봉 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이미혜 이명희 최숙화 문홍일  
다음 주 식당봉사 : 이형숙 광혜자 이미혜 이명희 강영님 문홍일 박호규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윤석철 김정애  
다음 주 설거지 : 추현영 박진숙 아동부·중고등부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는 괴롭고 힘든 때가 많았지만, 삶이 가져다주는 오늘의 절망보다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소망이 컸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분열과 대립의 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불신과 불통이 일반화된 이 사회를 붙잡혀 여겨 주십시오. 어렵게 이루어 온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냉랭한 이 사회에 사람의 온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곽상준 최경미 김경수 김기석 김희우 김지윤  
 김현주 김흥기 김희진 박홍재 박경원 박석희 조항미 박옥식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방극숙 배근수 김금순 오자영 이경남 이국노 김민화  
 이주경 이주영 오재영 이주영 오재영 이진영 한양미 이호원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장근성 박희순 장원호 박성희 정현모 정현선 조문규  
 진정숙 최미자 최종원 한기택 한상균 한인철 조윤숙 허명선 홍순구  
 안홍숙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LK 김문주 김수진 김시영  
 김신실 김주영 김지호 전해리 노성희 이순용 이종배 고정림 이현순  
 정연희 최윤희 황현성 이오복

### 감사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재흥 최희영 김진중 다메섹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이미혜 이순정 최미자 무명8 김명하 김시영 김태환 윤영미 이광재  
 이승진 전인섭

###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 녹색꿈헌금

이진영 한양미 무명42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김윤수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 겨울 숲

- 복효근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찌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딘다  
 그리하여 언 땅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엮어 쥐고 체온은 나누며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라 어느 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릇된 길을 버리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급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송구영신 (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리 봄 선생 박시내 집사

12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은 김현동 오유경 이해령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믿음으로 읽는 글

## 음식이야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제 값을 주더라도 좋은 물건을 구해 오래 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사셨다. 가구가 그랬고 옷 또한 그랬다. 그러나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 쓰는 것이 더 저렴해진 요즘 시대에 이런 소비는 미덕은커녕 미련한 것으로 치부된다. 세상은 싸게 사서 자주 새 것으로 바꿔 쓰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그것도 경제적 손해 정도가 아니라 존재적 희생을 당해야만 한다면 이를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는 필연적으로 대량 폐기와 함께 대규모 환경 훼손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다음 세대의 희생까지 요구한다.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합리적’ 기술인 원자력 발전은 후쿠시마 참사를 통해 지구적 위험을 초래했고, 이를 배송하기 위한 ‘합리적’ 송전탑 건설은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희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동남아 봉제공장, 아프리카 탄광의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파괴도 합리적 소비를 위한 희생적 전제이다. 다만 당장 내 지갑에서 비용이 지불되거나 내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소비자는 둔감할 뿐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합리적’ 소비 물결은 물건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음식에게까지 침투되어 있다.

세상은 자주, 좀 더 많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유혹을 해 온다. 언제든 마트에 가 진열대에 포장되어 놓인 ‘최저가’ 고기를 편히 집어 들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절감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공장식 밀집사육으로 잔인하게 고통 받는 동물들의 실상이 있다. 수백 수천 마리가 움푹달락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알을 생산하거나 살만 찌워야 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닭과 돼지의 고통은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창1:22). 육식을 금하자는 것이 아니다. 편하고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듯 지나치게 고기를 소비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에게 베푸신 복을 빼앗고 귀한 생명을 한낱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엄중한 죄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이다.

더 빨리 기왕이면 좋은 값을 받는 고기로 만들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인 자본의 오만은 유전자까지 조작한다. 겨울에 재배하기 위해 추위에 강한 넙치의 유전자를 이식한 딸기와 토마토, 특정 독성에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를 조작하여 강한 제초제를 쓰게 만드는 옥수수와 콩 등 우리 주변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애초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확된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4분의 1은 부유한 나라의 소가 먹고 있으며, 여전히 8억이 넘는 인구가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다. 식량이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이상 지구촌의 배고픈 이웃은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우리 과학기술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안전하다던 가슴기세정제로 귀한 생명을 잃은 후에야 그것이 독극물이었음을 알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돌아나게 하시며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다(창1:12). 유전자조작 식품을 소비하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죄를 돕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 생활에 스며든 식품첨가물에 관하여는 이를 말이 없다. 화학공장에서 만들어 진 착색제, 향료, 유허제, 안정제 등 듣기에도 불편한 것들을 먹는 식품에 집어넣는 이유는 영리를 추구하는 식품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가공음식, 청량음료, 과자 등을 소비하는 일은 가족의 건강을 담보하여 식품회사를 도와주는 행위이다.

지난 11월 있었던 환경세미나 ‘음식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먹거리의 이면에 숨어 있는 사실들을 밝히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살지 말자, 덜 쓰고 덜 먹고, 작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생활에서부터 함께 변화를 시작하자라는 제안이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건을 아껴 쓰며 다른 생명에 피해를 적게 주면서 밥상을 차리는 생활. 적게 먹더라도 제대로 된 유기농을 늘여 가는 식탁. 세상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이 되고자 하는 우리 청과교인들의 식탁과 장바구니에서 시작되리라 믿는다.

- 청과교회 환경부 교육팀